

부산광역시 초청공연

부산현대무용단

# 홍순미의 춤







● 춤꾼소개

1964년 부산에서 태어난 홍순미는 어릴때부터 춤을 취했지만, 이것이 정말 자신의 춤, 영원한 생활이라고 생각한 것은 대학에 들어와 현대 무용을 접하면서였다고 한다.

전공은 한국무용이었으나 현대무용의 평안한 호흡에서 이뤄지는 자유로운 감정표출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으며 정귀안님의 「동동」, 「흙」, 「은하의 노래」 등에 출연하면서 더욱 현대무용에 매료당했다.

이후 럭키창작무용단 단원으로 「황금가지」, 「분리에서 합으로」, 「바람개비」 등에 출연했으며 제5회 신인현대무용발표회와 공간무용의 밤 「안무와 즉흥 시리즈·89」에 참가하여 안무가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았고 최근 '89 대한민국 무용제 부산현대 무용단 「갈순」에 출연하여 적실한 춤꾼으로서의 위치를 굳혔다.

현재는 부산대학교 졸업생으로 구성된 부산현대 무용단의 회원이며 개인적으로 무용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춤꾼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기조로 계속적인 이론연구와 공동체적이면서 능동적인 작품을 하고 싶다는 신인답지 않은 아우진 욕심을 가진 젊은 춤꾼이다.

떠도는 숨결

●인무의도

이 땅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모습에서 기인한 사회의 흐름이 도대체 무엇을 말해 주는가에 대한 것이 나의 가슴에 강하게 충돌질 해 왔다.

우린 분명 조울한 몸짓의 용어라짐이 있다. 땅을 딛고 자유를 노래하며 하늘을 향해 날개짓 하고픈 우리들의 삶의 흔적이 있다.

잠들지 않는 정신으로 서로를 어루만지며 진실들을 나누려 한다. 그런데 잔인하게 불어오는 세상의 우리들! 그로인해 우리의 진실들은 뿌리내릴수 없는 비참한 세월에 아파한다.

비참하게 쓰러져가는 삶들을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 아래 자유인의 몸짓이고자 하는 가슴으로 풀어헤쳐 볼까 한다.

황혼의 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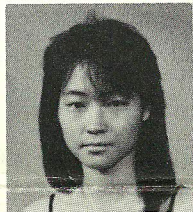
●안무의 도

황혼의 자리에 쉼때 서서히 저미어 오는 그 무엇이 있다.

가슴속 가득차는 순간 향원이 서럽고도 처절한 아픔이 온몸을 사로 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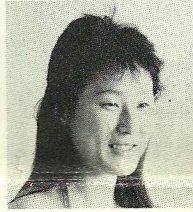
뿌리치지도 닿아보지도 못하는 정지된 호흡속에서 온몸 전체로 숨구지는 뜨거운 열기를 맞보았다.

곧게 뻗은 입속에서 머무는 언어들에 살기면서 목마른 이웃의 애는 듯한 삶을 위해 분리된 육신의 감각으로 부딪는 힘을 위해 나의 몸을 던져본다. 부서본다. 웅고려본다. 그리고는 감싸본다.



김수미

- 89년 부산대학교 무용학과 졸업
- 85년 12월 정나인 현대무용 출연
- 88년 5월 대학생 무용페스티벌 출연
- 86년 10월 부산대 예술대 제1회 정기공연 출연
- 87년 5월 문예예술 축전 참가
- 87년 10월 부산 현대무용단 창단 공연
- 88년 4월 제2회 부산현대무용단 공연 출연
- 88년 12월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출연
- 89년 4월 홍순미 현대무용의 밤 출연
- 89년 7월 제3회 부산 현대무용단 공연 출연
- 89년 10월 대한민국 무용제 출연
- 현 '부산 현대무용단' 정 단원



이정희

- 86년 10월 부산대 예술대 제1회 정기공연 출연
- 87년 5월 문예예술 축전 참가
- 87년 10월 부산 현대무용단 창단공연
- 88년 4월 제2회 부산 현대무용단 공연 출연
- 88년 12월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출연
- 89년 4월 홍순미 현대무용의 밤 출연
- 89년 7월 제3회 부산 현대무용단 공연 출연
- 89년 10월 KBS 공룡 대상 (대상수상)
- 현 부산대학교 무용학과 4학년 재 '부산 현대무용단' 준회원

공연평

●떠도는 숨결

떠도는 숨결은 안락할 수 있는 개인의 사적인 공간과 그 공간으로 스며들고 또 날치고 있는 사회적 공간과의 갈등을 다루었다. 그런 두 공간 속에서의 버둥거림, 찢겨짐, 분리됨의 몸짓이었다. —종락— 저물적인 문제의식과 함께 끈질기고 치밀한 구성을 작품에 주려했던 것은 저물적인 문제의식과 저물적인 문제의식과 함께 끈질기고 치밀한 구성을 작품에 주려했던 것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 같다. 이것은 동시에 미적 감각이 결여된 사회춤에 대한 훌륭한 반증일수도 있기에 말이다.

• 무용평론/김태원

●황혼의 노래

홍순미는 순발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신의 몸의 변형미가 튀어나고 그는 춤추면서 일단 정지된 막간도 보여 주는데 즉 이완과 수축을 대담하게 구사하는 댄서이다. —종락— 허리의 힘을 이용한 활형 포즈는 놀라웠다. • 시 인/김영택